

‘드론 200대가 수놓은 밤’...광양 드론 페스티벌 성료

라이트쇼·드론전시·체험행사 등 시민참여 더욱 풍성한 축제 거듭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와 시너지
“드론 산불 감시 등에 활용할 것”

광양시가 드론 200대를 활용해 ‘2024년 광양 드론 페스티벌’을 펼쳤다.

광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드론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4 광양 드론 페스티벌은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와 같은 기간에 진행됐다. 수많은 방문객이 운집한 가운데 하늘로 날아오른 200대의 드론이 가을 밤하늘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으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드론 체험행사장을 찾아 △피터피퍼일릿 만들기 △드론낚시(인형뽑기) △드론 풍선 터뜨리기 △드론농구 △3D펜 체험 △VR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개 이상의 체험행사에 참여한 스탬프 투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행운의 톨렛돌리기’는 대형드론과 미니 드론 등의 다양한 경품을 내세워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거운 축제장 분위기를 선사했다.

행사 기간에는 드론 체험 외에도 드론 전시 행사도 진행됐다. 드론 전시에는 ㈜호그리너어, ㈜전풍무인항공,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양순천RC클럽, ㈜날다 5곳이 참여했으며, 이중 수소전문기업 ㈜호그리너어가 장시간·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액화수소 드론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축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드론 라이트쇼에서 매들이, 숯불구이 등 광양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이미지를 구현해 기억에 남았다. 체험 부스에서는 드론농구, 드론 낚시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광양시는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광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드론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양시 제공**

서 주관하는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산불감시나 수색 등의 목적으로 수소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대상 ‘비 오는 날의 모란꽃’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제7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작가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응모작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입선 19명으로 총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상은 강광목 작가의 ‘비 오는 날의 모란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분청사기의 현대적 재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전통과 현대, 즉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수상작들은 현대 도예의 지평을 넓히면서, 분청사기의 특징인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조형의 의미가 잘 구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흥 도자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을 통해 고흥분청사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가치를 높여 전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도자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구례군, 을지연습 우수 시군 선정

구례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을지연습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 을지연습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구례군은 을지연습 준비부터 전시 직제 편성 훈련,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 창설 기구 운영 훈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길용 구례부군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 재난, 위기는 언제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가 와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취약계층 사랑의 쌀 나눔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

농협장흥군지부(지부장 전중순)은 지난 14일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나눔 쌀 10kg(330포) 총 1000만원 상당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전중순 지부장과 김성군수를 비롯해 군·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된 물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 예정이다.

전중순 지부장은 “농협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흥군지부는 매년 쌀기부, 고향사랑기부금, 폭염예방 그늘막기부, 이웃돕기성금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협의 따뜻한 나눔 실천 활동에 감사드린다. 장흥군도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지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이 202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지난 1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장흥군이 202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1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관련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개인

활동과 논·밭두렁 불 지르기 등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유흥농지의 나뭇가지 및 영농폐기물 등 인화 물질제거 작업도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조기진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월부터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장흥=김전환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섬박람회 예산 147억 지원요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정책회의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섬박람회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현재 사업비 248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위탁사업비 128억원을 포함해 도비 총 14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섬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비 추가 지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시장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4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정책회의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섬박람회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여수시 제공**

계 등 모든 인적 망(네트워크)을 추가동해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국가행사 승인 당시 예산은 국비 64억원, 지방비 64억원, 수익사업 120억원 등 248억원 규모였으나 행사

기간 연장과 물가상승을 반영 등 그간 추가 예산투입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김 지사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시민공약평가단 본격 운영 여수시, 33명 최종 선발

여수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평가단은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하여 18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ARS 무작위 추첨 및 전화 면접 등을 통해 33명을 최종 선발했다.

평가단은 내달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변경·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는 권고·조정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지난 11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위원장 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 강의 △시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활동 내용 설명 △분임 구성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SA’를 획득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